

'광주형 일자리' GGM, 출범 5년만에 최대 위기

주주단, 광주형일자리 취지 공감해 투자...노조 파업에 투자 철회 경고 현대차, 캐스퍼 배정 물량 줄여...전기차 내수 대수 57% 감소 4800대

광주글로벌모터스(GGM) 주주단이 투자 철회 카드까지 들고 나온 점을 놓고 GGM 안팎과 지역 사회에서는 예상했던 반응이라는 분위기다.

적게는 수억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을 투자한 기업들 입장에서 설립 5년 간 주주배당은 단 한푼도 받지 못한 상황에서 노동조합 설립과 쟁의활동으로 GGM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지역 노동계, 지역사회, 지방자치단체, 경제계 등의 합의로 탄생한 '광주형 일자리' 광주글로벌모터스는 '노사상생발전협정서' 준수를 전제로 한다. 그러나 모두가 협정서 준수에 여념이 없는 것과 달리 GGM 노동조합만이 이 약속을 저버리며 결국 GGM을 배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6일 광주시와 GGM 등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광주시와 현대차 등 37개 기업들은 GGM 법인에 2300억원을 출자했다. 주주단은 GGM 37개 주주사 중 1대 주주이자 광주시 출연기관인 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21%)과 2대 주주인 현대차(19%)는 협약에 따라 20년간 투자금을 뺄 수 없지만, 상당수 주주는 투자금 회수와 민형사상 대응을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GGM 주주단들은 대다수 지역 대·중견 기업들로

지역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광주형 일자리'의 도입 취지에 공감해 투자에 나섰다. 특히 노사갈등이 타 업종에 비교해 잦은 제조업 특성상 투자가 망설여 질 수 있지만, '무노조·무파업'을 골자로 한 '노사상생발전협정서'를 믿고 투자를 결심했다는 게 한 주주 기업의 설명이다.

이미 기업들 사이에서는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이 완성됐다는 분위기가 흐르고 있어 한 기업이라도 투자금 회수에 나설 경우 연쇄적인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결국 매년 이자와 대졸원금 상환에 약 450억원이 들어가고 있는 GGM은 투자금 회수가 현실화될 경우, 경영 자체가 불가능해 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GGM 노동조합만이 모르는 불안함은 당장 현대차가 배정한 내년도 캐스퍼 물량에서도 감지된다.

올해 예상되는 GGM의 캐스퍼 생산량은 전년보다 7.2% 5만6800대다. 이 중 내연차는 올해보다 70% 줄어든 9100대로 예상되고 있다. 전기차 내수 대수도 57.1% 줄어든 4800대 수준이다.

경제계에서는 GGM 노동조합 결성으로 인해 투자기업이자 생산 위탁 기업인 현대자동차가 불안감 및 불편함을 물량 조절을 통해 드러낸 것이라는 분



16일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GGM 주주단 관계자가 노동조합 파업의 불법성과 투자금 회수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왼쪽) 광주시 광산구 빛그린산단 광주글로벌모터스 전경.



16일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GGM 주주단 관계자가 노동조합 파업의 불법성과 투자금 회수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왼쪽) 광주시 광산구 빛그린산단 광주글로벌모터스 전경.

석도 나온다. 실제, 지난해 캐스퍼의 국내 판매량은 4만2000여 대로 국내 시판모델 중 12위에 올랐다. 기아의 K5, 제네시스 GV80보다 많은 대수로, 국내 물량을 늘릴 수도 있지만, 내수물량은 감소했기 때문이다. GGM 노동조합이 장기 투쟁 입장을 밝히고 있어 지난해 좌절된 2교대 근무 체계 재도입도 불투명하다는 평가다. GGM 주주단은 "생산 차질로 인한 수출 물량 감

소, 협력 업체 매출 급락, 완성차 업체의 추가 투자 중단 등 심각한 경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GGM 노동조합 내부를 통해 알려진 허무맹랑한 '현대자동차 인수설'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주주단은 이날 입장발표장에서 "일각에서 제기된 'GGM 위기 시 현대자동차 인수설'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며 "경영 위기가 지속되면 투자금 회수

와 사업장 폐쇄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재차 경고했다. 한편, GGM은 노동조합의 파업과 관련해 임직원에게 호소문을 내고 "GGM은 광주시민의 만들어진 존중할 일자리임을 다시 한 번 상기하고, 우리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주고 있는 우리의 일자리를 지키는데 모두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 1분기 신축 아파트 분양 '0' ...주택시장 한파 지속

전남, 1월 경기전망지수 최하위

5대 광역시 중 1분기 신축 아파트 분양이 없는 곳은 광주가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침체로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고 미분양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전남은 올 1월 주택사업자들의 경기전망이 전국 최하위 수준을 기록했다.

16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올해 1~3월 5대 광역시(부산, 대구, 대전, 울산, 광주) 총 28개 단지에서 1만7238가구(일반분양 1만2835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이는 전년의 1분기(1만5799가구)보다 62.9% 증가한 물량이다.

그러나 광주는 예정된 물량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부산에서 가장 많은 15개 단지가 공급되며 이어 대구 7개, 대전 4개, 울산 2개 단

지 등이다. 부동산인포는 "고금리로 지방 광역시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많이 가라 앉았지만 침체가 오래됐던 대구, 울산 등에서 지난해 두 자릿수 청약률 단지가 나온 것을 보면 실수요자들은 필요한 곳에 청약 동향을 쓰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올해 1분기는 여러모로 어수선한 상황이지만 부동산 분양 시장의 첫 단추가 잘 끼워진다면 지난해에 나타났던 최악의 상황은 벗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지만 광주는 분양 단지가 없는 탓에 이 같은 전망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다.

부동산인포는 지난해 지방 5대 광역시의 1순위 청약 경쟁률에서도 광주가 1.67대 1로 부산(1.6대 1)에 이어 두번째로 낮았다고 분석했다. 주택사업자들이 생각하는 올 1월 경기전망지수에서도 광주·전남은 평균 이하를 기록했다.

이날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주택경기전망지수를 조사한 결과 전남은 전월(64.2)보다 10.9포인트 하락한 53.3를 기록했다. 대구와 부산에 이어 전국 17개 지자체 가운데 세번째로 낮았다. 광주는 전월보다 18.9포인트 하락한 61.1를 기록했다.

광주와 전남 모두 전국 평균(61.6)을 하회했다.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와 탄핵 정국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이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을 키우고 있고, 주택 사업 경기 전망도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방은 매매가와 거래량이 둔화세를 보이는 가운데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매수 심리가 크게 위축된 모양새라고 주산연은 진단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경기침체에 관망세 지속...광주 아파트값 35주 연속 하락

광주 아파트 매매가격이 35주 연속 하락했다. 16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4년 1월 2주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주 광주의 아파트매매가격은 전주와 견줘 0.03% 하락했다. 전주(-0.05%)보다 하락폭은 완화됐지만,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했다.

자치구별로는 동·남구(-0.06%)의 하락폭이 가장 컸다. 이어 광산구 -0.04%, 북구 -0.03%, 서구 -0.01% 순이었다. 전남의 아파트 매매가격도 전주 대비 0.04% 감소했다. 광주의 전세가격은 지난해 대비 0.02% 상승을

기록했고 전남은 0.01% 하락했다. 한편, 서울 아파트값은 상승세를 멈춘 지난달 넷째주 이후 3주 연속 제자리걸음을 했다. 재건축 단지 등 일부 선호단지의 가격이 오름세인 반면 그외 단지에서 매수 관망세가 확산하며 양극화가 심화하는 모습이다. /김민석 기자 mskim@

광주서 '전국기능경기대회' 열린다

9월 20~26일 DJ센터 등

'제 60회 전국기능경기대회'가 올해 광주에서 개최된다. 대회는 오는 9월 20일부터 26일까지 김대중컨벤션센터와 광주공업고등학교 등 총 6개 경기장에서 펼쳐진다.

특히 올해 대회는 60주년을 맞아 전 국민이 화합하고 도전을 통한 숙련기술인들의 축제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올해 대회는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경기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광주시가 분담하는 '열린경기장' 예산은

34억7000만원으로 2024년도와 2024년 지자체 예산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일부 프로그램의 간소화와 참가 시설 및 서비스 질 저하에 영향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 같은 어려움 속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 광주 지역본부장이 위원장을 맡은 광주광역시기능기위원회는 "제60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대한 광주 시민들의 보다 많은 관심과 응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대회와 관련한 자세한 일정과 내용은 마이스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SOC 예산 2년 새 10조원 하락...투자 확대해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설연)은 16일 "SOC 세출 예산현액(추경과 전년도 이월액 등이 반영된 예산 총액)이 최근 급감했다며 건설 경기 위축 대응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공공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가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설연이 발표한 'SOC 결산서로 본 예산 집행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SOC 예산현액은 2021년 53조4000억원에 달했으나 이후 하락세를

나타내며 2023년에는 42조6000억원으로 2년 새 10조원 이상 줄었다. 나아가 물가 변화를 반영한 SOC 예산현액은 2010년 53조6000억원에서 2023년 38조2000억원으로 급감했다. 건설공사비 변동을 반영한 SOC 예산현액은 2023년 33조1000억원으로 2010년(60조4000억원)의 절반 수준이다. 물가나 공사비 변동을 감안하면 감소 폭이 더 크다는 의미다. /연합뉴스


www.e-dk.co.kr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가전이 한 곳에!



벽걸이 공기청정살균기



스탠드 공기청정살균기



제습기



레인지후드



전기룩탑

공기청정살균기 | 공기청정기 | 공기순환기 | 제습기 | 레인지후드 | 전기룩탑 판매 및 A/S 문의 1544-1154